

2017년 7월 14일

투자전략 Daily

•채권분석

7월 통화정책회의 -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중화권 증시 동향

CSI300과 홍콩H지수 연중 최고치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세진중공업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G ETS 외 5개 종목

•산업/기업분석

건설, 화학, 증권, 현대글로비스, 현대에이치씨엔, 만도, 하나투어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7(금)	7/10(월)	7/11(화)	7/12(수)	7/13(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79.87	2,382.10	2,396.00	2,391.77	2,409.49
	등락폭	-7.94	2.23	13.9	-4.23	17.72
	등락종목	상승(상한)	236(1)	407(0)	267(0)	397(0)
		하락(하한)	484(0)	391(0)	542(0)	396(0)
	ADR	79.63	79.35	76.08	73.54	76.60
	이격도	10 일	99.65	99.77	100.34	100.12
		20 일	100.09	100.13	100.67	100.45
	투자심리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14	296	284	269	289
	거래대금 (십억 원)	5,489	4,925	4,942	5,352	6,170
코스닥	코스닥지수	663.77	657.86	656.01	651.10	652.69
	등락폭	-0.02	-5.91	-1.85	-4.91	1.59
	등락종목	상승(상한)	310(1)	477(2)	384(0)	538(2)
		하락(하한)	641(0)	824(0)	724(0)	563(0)
	ADR	104.91	103.95	103.63	102.83	103.04
	이격도	10 일	99.81	99.08	99.05	98.53
		20 일	99.52	98.69	98.51	97.92
	투자심리	5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552	513	542	586	491
	거래대금 (십억 원)	2,598	2,606	2,535	2,871	2,96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80.2	2,031.8	1,455.2	593.7	95.5	192.4	104.2	44.5	424.9
	매도	2,786.6	1,691.6	1,641.3	851.5	86.0	147.5	94.3	19.8	442.2
	순매수	-206.4	340.3	-186.1	-257.8	9.5	44.9	9.9	24.8	-17.3
	7월 누계	11.2	1,167.7	-788.2	-404.7	-55.8	-36.7	4.0	-17.7	-277.4
	17년 누계	-4,086.1	10,399.0	-9,049.3	473.8	-1,450.4	-3,913.6	-106.5	-550.4	-3,502.4
코스닥	매수	2,556.2	259.5	130.7	51.1	9.6	23.3	20.7	2.7	23.2
	매도	2,578.4	208.2	154.9	46.3	16.1	31.8	22.5	2.0	36.3
	순매수	-22.2	51.2	-24.1	4.8	-6.4	-8.5	-1.8	0.8	-13.1
	7월 누계	390.4	22.1	-352.8	-66.3	-47.2	-57.4	-70.1	-9.2	-102.6
	17년 누계	2,316.1	1,111.6	-2,438.5	-680.6	-332.7	-658.2	-320.2	-59.4	-387.3

7월 통화정책회의 –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76배
12MF PBR	1.00배
Yield Gap	8.5%p

- ▶ 기자회견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 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 4월에 이어 올해 성장전망을 2.6%→2.8%로 0.2%p 상향
- ▶ 7월 전망에서 추경 편성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상향 가능성 상존

7월 통화정책 평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7월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여건이 개선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금융긴축 전환 가능성 시사에 동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2.6%로 0.1%p 상향한 데 이어 7월에도 올해 성장률을 2.6%→2.8%로 0.2%p 올렸다. 더불어 이번 전망에서 신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성장률의 추가상향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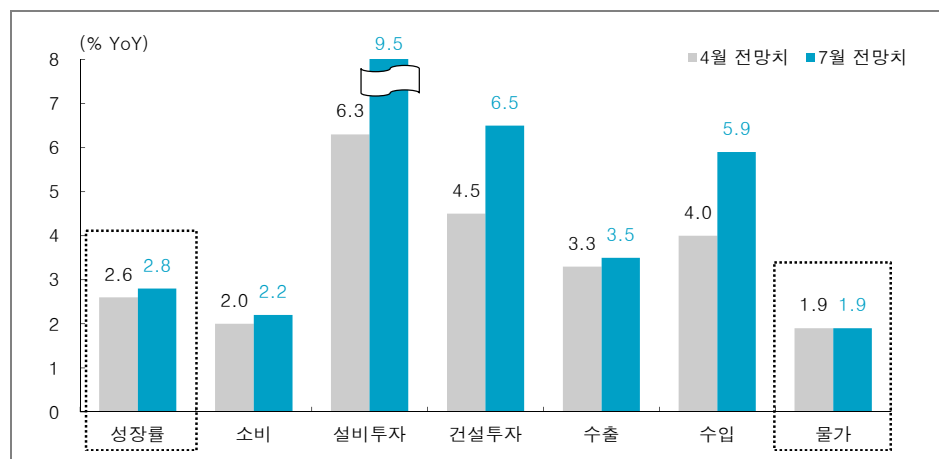
향후 통화정책 전망

올해 하반기에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금리인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1)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3% 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가 측면에서는 성장확대 등으로 하반기를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 목표(2%)를 상회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3) 대내외 금리차 측면에서는 한국-미국 수익률곡선 역전(-)으로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통화정책도 금리인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채권시장 영향 및 전략

금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채권금리 상승세가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채권시장의 경우 수익률곡선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영역이 연방기금 목표금리 상단인 1.25%와 역전(-)됨에 따라 금리하락 조정국면이 마무리 되었으며,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한국-미국 기준금리가 수렴(=)하며 하반기 대내외 수익률곡선 역전 구간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선물 순매도로 전환했으며,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 논란에 따른 채권펀드의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역시 유의해야 하겠다.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 변동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기자간담회 Q&A

〈표 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요약

구분	5월 발표 내용	7월 발표 내용
기준금리 결정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1.25%)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1.25%)
세계경제 진단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 받을 것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국제유가 향방 등에 영향받을 것
국내경제 진단	·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승 ·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	·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승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GDP 성장률은 4월 전망치(2.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
물가 진단	· 소비자물가는 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1.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 ·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의 오름세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 ·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
금융시장 방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된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등 안정세가 지속됨 ·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상승하다가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 등으로 반락 ·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	· 국제금융시장은 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 ·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국제금리와 동조하여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 · 주가는 국내경제의 건실한 성장세와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 ·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대 등으로 상당폭 상승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
향후 통화정책방향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케함이 통화정책의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케함이 통화정책의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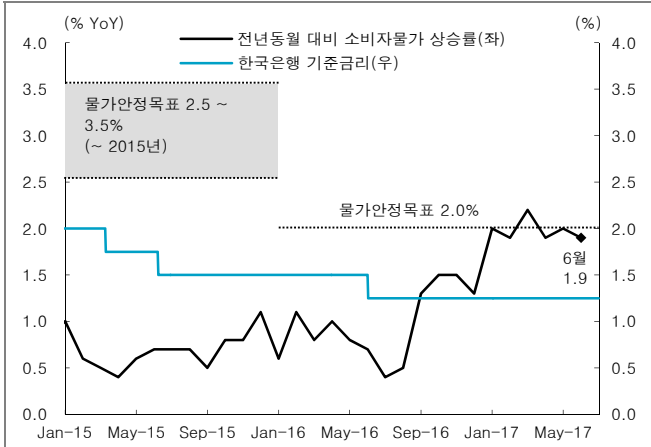
〈표 2〉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Q&A 요약

기자질문	한국은행 총재 답변
7월 성장률 전망치(2.8%)에는 추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인지?	7월 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경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성장률에 추가 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 다만 추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집행시기, 범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로 양화하기는 어렵다고 부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통위 내부의 시각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축소 요건으로 경제회복 흐름이 보다 뚜렷해질 필요. 한편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정책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강도는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 이를 감안하면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해야 할 필요. 다만 이는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초래할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최근들어 나타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 등으로 취약자주를 중심으로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 다만 한국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분포되어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여력 또한 건전한 수준. 따라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님
한국 경기 흐름을 건설하다고 표현한 시사점은?	1분기 성장률이 견조했고,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견된다는 판단을 드러낸 문구.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이 양호하다는 의미로써, 단시일내의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님
GDP 갭 (+) 전환 예상시기 및 통화정책 시사점은?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 2.8%는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 GDP 갭은 추산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음. 한편 과거 금리인상이 GDP 갭 (-) 해소 시점에 맞추어 단행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단행되는 것임을 강조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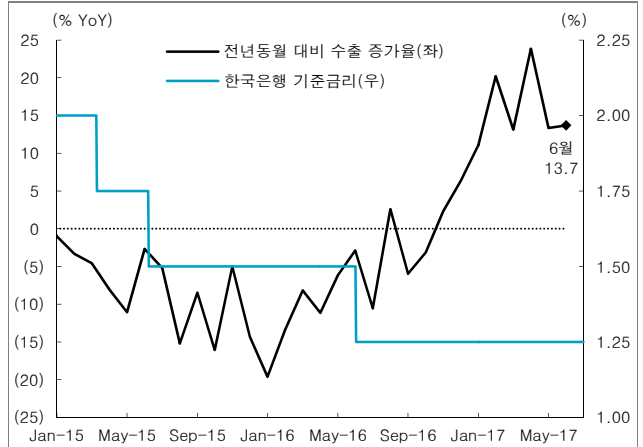
■ 한국경제 vs. 통화정책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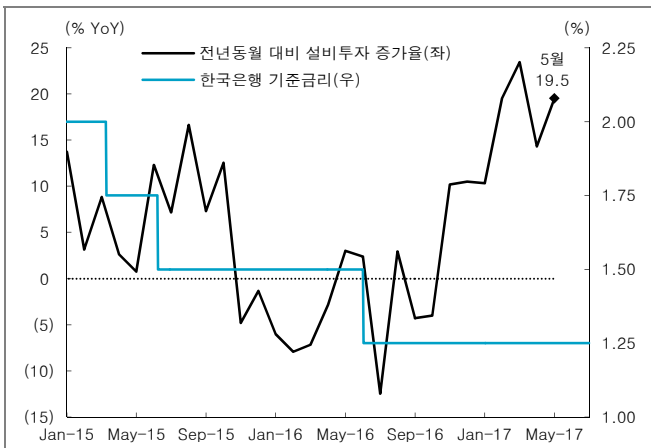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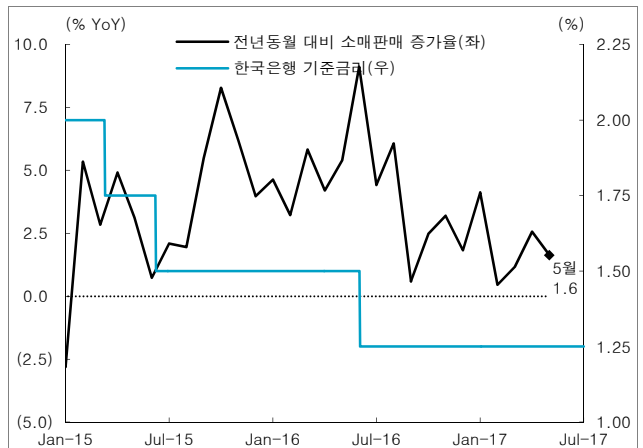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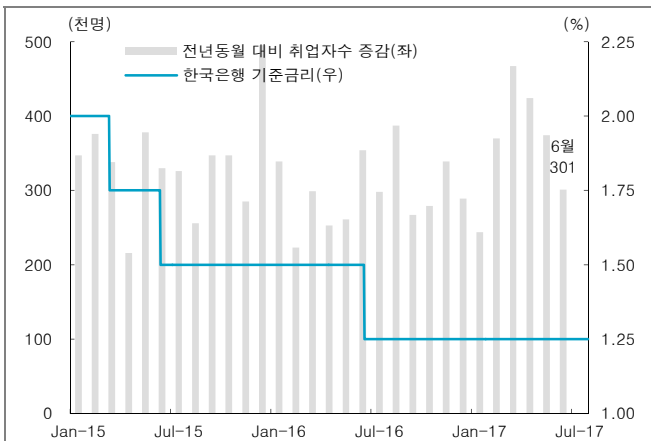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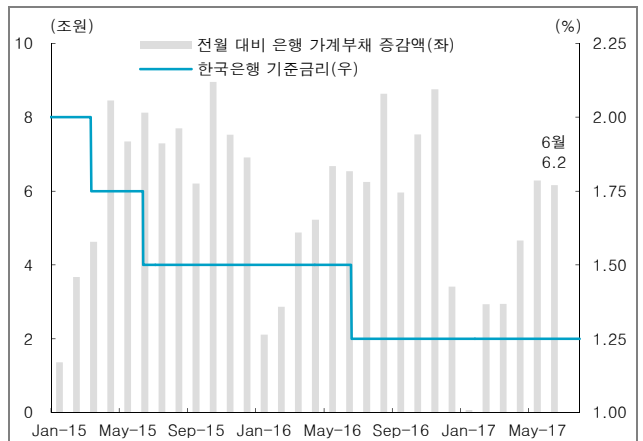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취업자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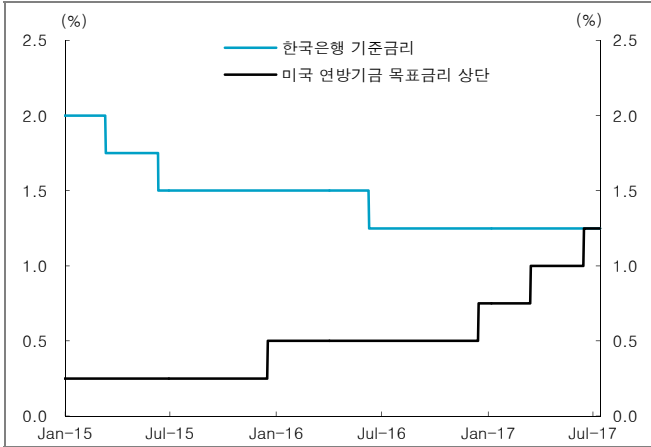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은행 가계부채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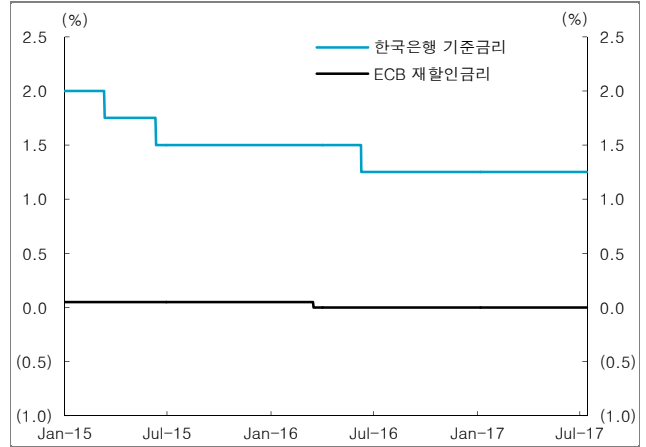
■ 금융시장 vs. 통화정책

[그림 7]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연준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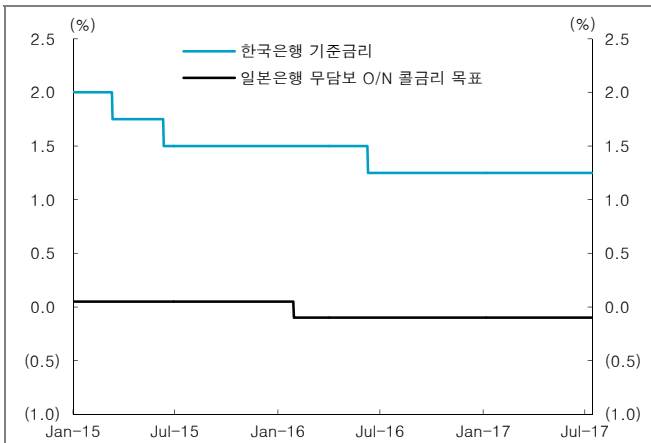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ECB 정책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국고채 3년 금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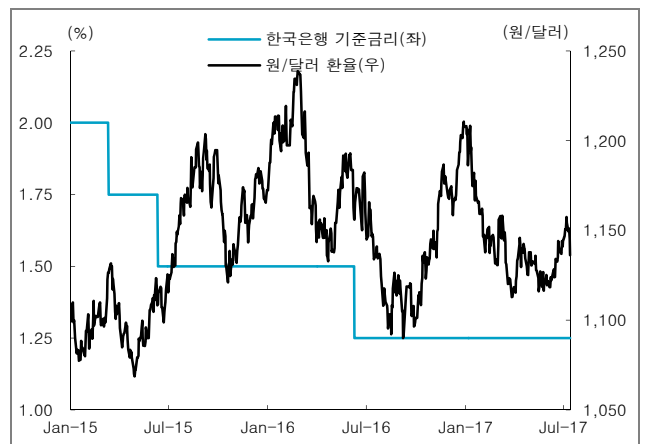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KOSPI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한국은행 경제전망 현황

〈표 3〉 한국은행 7월 경제전망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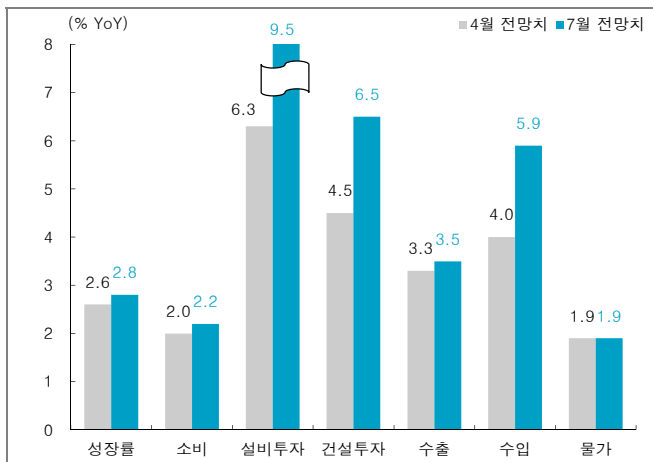
(단위: % YoY, 십억달러)

구분	2017F				2018F			
	1H	2H	연간	KIS	1H	2H	연간	KIS
GDP 성장률	2.8	2.9	2.8	2.9	2.8	3.0	2.9	2.7
소비	2.0	2.4	2.2	2.4	2.7	2.6	2.6	2.6
설비투자	14.1	5.0	9.5	4.2	0.5	5.7	3.0	5.2
건설투자	9.9	3.7	6.5	-	(2.2)	2.3	0.2	-
수출	4.3	2.7	3.5	14.3	3.4	3.8	3.6	4.2
수입	8.8	3.2	5.9	15.9	1.9	4.9	3.4	7.2
소비자물가	2.0	1.8	1.9	2.2	1.8	2.0	1.9	2.1
경상수지	35.5	34.5	70.0	85.5	32.5	35.5	68.0	77.9

주: KIS = 당사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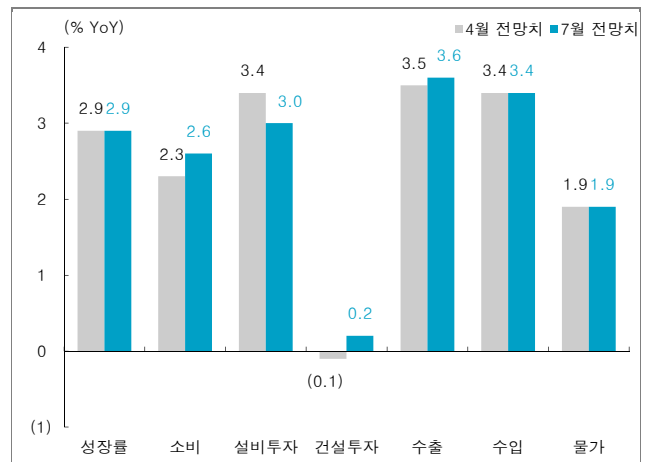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전망치 변동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치 변동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CSI300과 홍콩H지수 연중 최고치

- ▶ 상해종합지수는 0.6% 상승, 글로벌 긴축 우려 완화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호재로 작용
- ▶ 홍콩H지수는 1.5% 상승, 미국 엘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자본 유출 우려감 축소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6% 상승,
보험, 은행, 증권, 공정건설,
철강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6% 상승한 3,218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2,108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4.5% 증가했다. 직전일 미국 엘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약화됐다. 게다가 금일 인민은행이 3,600억위안의 중기유동상지원창구(MLF)를 발행하며 유동성을 공급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약화됐다. 이에 따라 억눌렸던 건설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그 외, 6월 수출입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해외운임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소식에 시크리컬 업종들도 동반 상승했다. 대부분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던 가운데 가전, IT 하드웨어, 자동차 등 업종에 차익매물이 출회했다. 대형주 강세 속에 CSI300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반면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약화 전망에 차스닥지수는 0.4% 하락했다. 외국인들은 강세장 속에 총 13.5억위안의 중국주식을 매수하며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5% 상승,
보험, 증권, 은행, 전력,
소비재 등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1.5% 상승한 10,677p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증시의 상승 마감에 동조하며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직전일 엘런 미국 FOMC의장이 하원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또한 본토 금융주의 강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금융주가 상승한 것과 본토 자금의 유입세가 이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항생지수도 금융주와 카지노주의 강세 속에 1.2% 상승한 26,346p로 마감했다. A/H 프리미엄은 홍콩 금융주의 강세 속에 126.1p로 소폭 하락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7/13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18.16	0.64	0.18	2.04	3.69
심천종합	1,888.70	-0.04	-1.35	1.55	-4.08
차스닥	1,778.86	-0.44	-3.27	-0.93	-9.34
홍콩H	10,677.44	1.52	3.20	1.44	13.65
Shibor 7일물 금리(% , %p)	2.82	0.10	1.17	-2.81	10.83
Shibor 1개월 금리(% , %p)	4.07	-0.42	-3.50	-12.58	23.04
중국국채 3년물(% , %p)	3.48	0.04	0.55	18.82	20.51
위안/달러 고시환율	6.7802	-0.10	-0.16	-0.22	-2.26
역내 위안/달러	6.7806	0.11	0.31	0.27	2.42
역외 위안/달러	6.7828	0.05	0.26	0.08	2.85

주: 13일 오후 5시 4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2,400선 돌파

- 뉴욕증시는 엘런 연준 의장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발언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2,400P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 등 일부 기관 매수세로 장중 2,422P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금융투자자를 비롯한 일부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며 2,409P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며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대형 IT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성장 둔화 우려로 최근 약세를 보였던 뷰웍스는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1% 이상 급등. 자회사가 현대차 수소차에 수소탱크를 독점 공급한 사실이 재부각되며 일진다이아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LG화학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30만원선을 돌파함. 또한,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 분비 복제 돼지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엠젠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무릎 골관절염 치료 신약 '인보사' 약효 논란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연속 급락했으며, 머신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OLED 및 LCD 압흔 검사 장비 생산업체인 브이원텍은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 후 장중 10% 가까이 급등했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반전 후 6% 가까운 약세로 마감

종목/테마	내 용
일진다이아(081000) ▶12,300 (+25.77)	현대차 독점 납품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의 양산형 수소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수소탱크를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독점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현대차가 내년 2월 출시를 목표로 한 번 충전에 800km를 달리는 수소전기차 출시한 예정이며 일진복합소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용 수소탱크를 양산하고 있음
엠젠플러스(032790) ▶8,840 (상한가)	세계 최초 인간 인슐린 분비 복제 돼지 생산 성공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 분비복제 돼지 생산에 성공해 전 세계 73조 원 당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 현재 전 세계 4억2,300만명, 우리나라 약 470만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 비중이 지난 30년 간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도체 관련주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청화유니 그룹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타이거일렉(219130, +12.53%), 실리콘웍스(108320, +7.54%), 피에스케이(031980, +6.51%), 테스(095610, +4.49%), 케이씨텍(029460, +6.05%), 싸이맥스(160980, +3.9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삼성SDI(006400) ▶181,000 (+4.93%)	- 휴대폰 배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부문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LG화학(051910) ▶314,000 (+4.84%)	- 배터리 부분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루며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세진중공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세진중공업 (075580)	3,985 (-5.1)	4,200 - (7/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 그룹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2017년을 저점으로 2019년부터 2015년 매출 수준 회복 전망 - 길었던 업계 구조조정을 견뎌냄에 따라 시장 내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점유율 증가 기대 - LPG탱크 기술을 기반한 가스선 탱크 제작, EGCS(배기가스 저감장치) 시장 진출 등 제품 다변화 기대
대주전자재료 (078600)	7,190 (+7.0)	6,720 - (7/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성 페이스트 부문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기가 추가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의 사용처가 IT 부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으로 확장되며 MLCC 수요 증가 전망 - 일반용 LED 부문에서 발생하던 형광체 매출이 자동차용 PIG(Phosphor in Glass) 매출까지 확대되며 실적 성장 전망
알엔투테크놀로지 (148250)	10,000 (+42.9)	7,000 - (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전력소모와 높은 신뢰성을 겸비한 LTCC 소재 수요는 전자부품의 경박단소 및 고주파화에 따라 증가할 전망 - 지난 4월 증설한 강릉 2공장이 18년 2분기부터 가동하며 신규품목 생산에 따른 매출 확대 전망 - 향후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하츠 (066130)	5,710 (-4.2)	5,960 - (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이후 본격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올해와 내년 레인지후드의 매출 증가 전망 -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기기의 자체 생산을 통한 이익률 개선 전망 - 신규 건축물의 대형화와 초고층화 추세로 환기시스템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9,650 (+6.1)	27,950 - (5/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1분기 잠실과 서초 직영점 개원에 이어 연간 4~5개의 직영점 확대로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 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 매력 보유와 동시에 코딩교육센터를 통한 신규 성장 동력 강화 - 18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학교육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 전망
코엘패션 (033290)	4,170 (+22.1)	3,415 - (4/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 가능 - 언더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연 평균 11.7%)에 따른 수혜 전망 - 최근 제품 다각화를 통해 언더웨어 외 매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향후 브랜드 추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타이거일렉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G ETS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G ETS (151860)	4,695 (+11.3)	4,220 (7/05)	125	20	15	428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적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67,000 (-4.6)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45,950 (+12.6)	40,800 (5/23)	2,970	279	190	6,766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추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6,480 (-1.7)	6,590 (5/17)	1,438	99	41	754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파트론 (091700)	9,250 (-18.5)	11,350 (4/13)	887	67	51	979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 							
오텍 (067170)	13,750 (+21.1)	11,350 (4/6)	828	37	17	1,288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2Q preview: 위기 극복 후 구조적 변화의 시작

■ Preview: 쇼크도 서프라이즈도 없다

대형사 중 2분기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업체는 없다. 주택 매출의 증가폭이 확대되며 예상치 못한 해외 비용도 상쇄될 것이다. 1분기 원화강세로 대거 환손실이 발생했으나 2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25원 오르며 환에 따른 충격도 없다. 그간 이익 변동성이 컸던 GS건설도 예상에 부합할 전망이다. 그러나 컨센서스를 의미 있게 상회할 업체도 없다. 컨센서스가 이미 상향돼 있고, 최근 1년간 크게 낮은 주택 원가율을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는 건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익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장의 관심사는 해외수주로 옮겨가고 있다.

■ 7월부터 해외수주 계약 시작

지루하게 지연됐던 해외수주의 본계약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달 오만 두콰 정유(40억달러)의 입찰 결과가 발표되고 현대건설은 카타르 알부스탄 도로, 방글라데시 발전 등 총 12억달러의 본계약을 예상한다. 올해는 중동 정유플랜트가 주요 시장이지만 2018년부터 중동의 화학플랜트로 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 화학기업들 역시 정유/화학플랜트의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유가가 \$45~50/b를 지켜준다면 2018년 플랜트 시장은 확장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동의 플랜트 발주가 급속히 늘던 2004~2006년 평균 유가는 \$54/b였다[그림 5,6]. 오히려 70달러가 넘어서면 발주처는 신중해진다. 모든 EPC cost는 유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상반기 대형사의 주택 분양은 계획의 29% 달성

대선과 정책 불확실성,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으로 대형사의 합산 분양세대는 40,220세대에 그쳤다. 이는 목표의 29.3%에 해당된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정비사업에서 차질이 컸다. 6월부터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연간 목표의 70% 수준은 달성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세대는 13.7만가구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연간 총 공급은 35만세대로 예상해 전년대비 22% 감소하겠으나 역사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제 건설사들은 2018년 이후의 입주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7년 상반기 대형사의 입주량은 2.9만세대지만 2018년은 6.3만세대로 2배 이상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대형사에서 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분양가 대비 시세가 크게 하락한 지역)은 낮다.

■ Top picks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위기 극복 후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기업

Top picks는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지한다. 업황 호조 외에도 구조적 변화가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대림산업은 연초 KRCC(화학 자회사) 매각에 이어 최근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사업 매각 등 구조재편과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다. 비로소 해외 비용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림산업은 다양한 자산의 구조재편, 매각, IPO 등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우려와 달리 이란 '이스파한 정유'(작년 말 LOA 수령)도 곧 early work를 시작해 연내 착공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화학플랜트 시장 회복의 수혜가 예상될 뿐 아니라, 바이오플랜트를 핵심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국내 유일의 시공경험), 삼성디스플레이의 A5 착공으로 안정적인 cash cow를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화학: 2Q17 preview - 공급과잉 우려 지속

■ 6월 다운스트림 스프레드 반등

다운스트림 스프레드가 6월 반등함에 따라 2분기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13%와 4% 상향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분기 대비 21%, 34% 감소할 전망이다. 6월 ABS 스프레드(1개월 후행 기준)는 5월 평균 대비 33% 반등하며, 2분기 스프레드는 우리 추정치를 10% 상회했다. 1개월 후행 기준 PS, PVC 스프레드 또한 5월 평균 대비 28%, 40% 상승해 추정치를 7% 상회했다. PE, MEG, SM 등 기타 주요 다운스트림 제품 마진들도 회복세를 보였다. 여름 휴가철에 앞선 재고축적이 스프레드 반등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6월 중순 이후 업스트림 제품 가격이 안정화된 것 또한 재고축적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2분기 정기보수 영향으로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6% 줄어들 것(영업이익 추정치 5% 하향)으로 예상된다.

■ 3분기 실적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최근 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듯하다. 1) 3분기는 플라스틱 수요에 있어 통상 성수기며, 2) 업스트림 가격이 바닥을 지나 반등함에 따라 향후 재고축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3분기 제품 마진 또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가 시사하듯, 현 시점에서 3분기 방향성은 뚜렷한 상승보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의 공급증가가 업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중동, 인도, 미국의 설비 증설이 있었고, 2) 5월로 정기보수 시즌이 일단락되며 설비들의 재가동이 시작됐고, 3) 미국의 신규 설비들 또한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유가의 반등과 위안화 절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구매 등 강한 투기수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기술적 반등 구간

3분기 이익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 제품 마진 개선에 대한 강한 확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발 공급증가에 대한 우려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화학 설비 증설은 20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도 2020년 이후 11기의 신규 설비가 가동될 예정이다. LG화학과 금호석유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시장의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며 밸류에이션 또한 고평가 상태다. 반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하반기 미국발 공급증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저평가된 상태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증권: 2Q17 Preview - 하반기까지 실적 예보 맑음

■ 2분기 증권업종 합산 순이익 2,984억원 전망

2분기 커버리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합산 순이익은 2,984억원(-5.3% QoQ)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말 합병으로 연간 비교가 어려운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3사 합산 순이익은 2,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것이다. 1분기 이익 호조를 이끌었던 ELS 조기상환 규모가 줄어들면서 트레이딩부문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2분기 ELS 조기상환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분기 20.5조원 대비 45.3% 감소했다. 다만 ELS 상품의 기초자산인 KOSPI 200, HSCEI, Eurostoxx 50 지수가 모두 안정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헷지운용이익이 조기상환이익 규모 축소를 일부 방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거래대금 상승으로 인해 수탁수수료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8.9조원(코스피 5.6조원, 코스닥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전분기 대비 18.4% 증가했다. 대부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이끈 결과이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2분기 평균 61.8%로 전년 대비 7.3%p, 전분기 대비 0.6%p 하락했다. 따라서 키움증권의 수탁수수료 증가폭은 거래대금 상승폭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한다.

■ 3분기 ELS 조기 상환 사이클 재현

3분기에도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ELS 조기상환에 힘입은 대형 증권사의 트레이딩 손익 호조가 전망된다. 상환 가능 시점이 6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기상환 대상이 되는 상품은 2017년 1분기 발행된 ELS다. 참고로 2016년 3분기 발행된 상품은 대부분 올해 1분기에 이미 상환되었다. 1분기 전체 ELS 신규발행 규모는 17.5조원이다. 전 분기(1Q17) 증권사 호실적의 주요 원인은 20.5조원에 달하는 1Q15 발행물량의 조기 상환이었다. 따라서 3분기에도 대형 증권사의 이익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운용/평가손실 우려는 제한적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및 운용손실 가능성이다. 1분기 말 기준 커버리지 증권사 합계 채권 보유액은 70조원이며,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총 트레이딩 채권 규모는 49조원이다. 만일 듀레이션을 일괄 0.5년으로 가정할 경우 시장금리 25bp 상승에 따른 세전이익 변동폭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대형사 평균 200억원, ROE 하락폭은 0.4%p다. 하지만 이미 연초부터 시장금리 상승은 예견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채권 포지션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년 4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시장금리 급등이 없다면 채권 평가손실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글로벌비스(08628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0원(상향)

종가(7/12): 151,000원

규제 강화가 주는 역발상 투자 기회

■ 역설적으로 공정위 규제 강화가 기업가치 재평가 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글로벌비스의 지배구조 변화는 필연적이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글로벌비스의 지배구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오랜 기간 글로벌비스 주가를 움직여온 지배구조 노이즈에서 벗어나 순수 물류회사로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주 전환 포기 선언 이후 사업가치가 재조명된 삼성SDS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물류 본업 이익 안정적으로 증가

현대글로벌비스의 영업이익은 계열과 비계열 물량이 함께 늘어나 2019년까지 연평균 7%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해상운송에서 글로벌비스가 담당하는 물량은 현재 50%에 불과하나 내년에는 60%로 높아지고 2020년부터는 그룹 물량 대부분을 글로벌비스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자물류, M&A를 통해 비계열 물량의 비중을 2020년까지 40%로 확대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 밸류에이션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

현대글로벌비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10,000원으로 17%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017F EV/EBITDA 9배(2015~16년 평균)를 적용해 구했다. 기존 2017F PER 12배(2013년 저점)에서 순수 영업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거 2개년 평균 EV/EBITDA를 적용했다. 현재 주가는 역사적 저점인 7배에 불과하다. 토요타통상은 10배, 완성차 해상운송 분야의 세계 1, 2위 업체인 NYK, MOL은 각각 12배, 14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비스를 지배구조 이슈에서 벗어나 물류 본업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4,671	698	377	10,052	(29.7)	827	19.2	9.7	2.3	12.8	1.6
2016A	15,341	729	506	13,483	34.1	885	11.5	7.4	1.7	15.4	1.9
2017F	16,143	788	622	16,600	23.1	964	9.1	6.6	1.4	16.7	2.0
2018F	17,179	856	610	16,261	(2.0)	1,051	9.3	6.0	1.3	14.4	2.0
2019F	17,810	905	647	17,259	6.1	1,117	8.7	5.7	1.1	13.6	2.0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에이치씨엔(126560)

중립(유지)
종가(7/12): 4,330원

2Q17 Preview: 콘텐츠 비용 부담으로 수익 정체

■ 2분기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2분기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7억원, 1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14.3% 감소할 전망이다. 방송 매출액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 감소로, 유선통신 매출액은 가입자수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16년 4분기에 인상한 콘텐츠 구매 가격이 17년에도 적용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입자 감소 추세

방송,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감소 추세다. 13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방송 가입자가 17년 1분기에 소폭 증가했다.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해 가입자 유치가 소극적이면 가입자는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결합판매 경쟁력이 낮아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가입자도 감소할 것이다.

■ 매출, 수익성 정체

17년 매출액은 가입자수 및 가입자당 매출액(ARPU) 감소로 전년대비 1% 줄어들 전망이다. 16년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감소, 신규 T커머스 출시에 따른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하지만 17년 영업이익은 1.3% 감소해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콘텐츠 구매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흐름이 양호해 보유 현금이 15년 2,309억원에서 16년에는 2,7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7년에는 3,12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규모 현금은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투자 의견 중립 유지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IPTV와의 경쟁으로 가입자가 줄어들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감소하며 콘텐츠 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부가 19년~20년에 SO 권역 제한을 완화하면 19년부터 M&A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많아 EV/EBITDA가 1.7배로 낮고 가입자당 기업 가치가 11만원에 그치는 점은 매력적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91	45	37	343	(15.9)	93	10.1	1.8	0.7	6.6	1.1
2016A	292	49	44	412	20.1	95	10.0	1.6	0.7	7.4	1.0
2017F	289	49	44	401	(2.7)	95	10.8	1.7	0.7	6.8	1.0
2018F	286	47	42	380	(5.2)	92	11.4	1.3	0.7	6.1	1.0
2019F	285	45	41	371	(2.4)	90	11.7	0.7	0.7	5.7	1.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만도(20432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0원(유지)

종가(7/12): 233,500원

2Q17 Preview: 짧게 끝난 특허소송, 길어지는 사드여파

■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6.8% 하회 전망

만도 2분기 영업이익은 사드 여파로 중국 내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급감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주요 고객사인 중국 질리기차의 2분기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5만대(+83.4%) 늘었으나, 현대기아차의 2분기 중국 리테일 판매가 18만대나(-43.6%) 줄었기 때문이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4,347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576억원(OPM 4%)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6.8% 하회할 전망이다. 순이익은 환율이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보쉬와의 특허분쟁 종료비용이 일부 반영되며 컨센서스를 16% 하회할 전망이다.

■ 사드 여파는 3분기 실적에도 영향

3분기 초로 전망했던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 반등 시점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 사드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가격인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분기 현대기아차 가동률 가정보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기존 전망 현대/기아 83%/63% → 7/10 자동차 2분기 프리뷰 수정 전망 49%/49%). 현대기아차는 7, 8월 비수기가 지난 뒤 9월에 신차 출시와 판매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판매량 반등을 꾀할 전망이다.

■ 보쉬와의 특허분쟁 조기종료는 긍정적

장기화를 예상했던 보쉬와의 특허분쟁이 조기에 종료된 점은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만도는 6월 27일 공시를 통해 보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잠금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관련 특허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16월 9월 보쉬는 만도의 ABS와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ESC)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은 상호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협상에 합의한 뒤 맞고소를 취하했다. 두 회사 모두 서로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만도의 지급금액이 다소 큰 것으로 추정되며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만도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쉬와 겨루는 수준으로 재평가 된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매력적인 가격구간 재진입

올해는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사드 악재까지 겹치며 트레이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단 최근 조정으로 주가는 다시 매력적인 가격구간으로 재진입했기 때문에(12MF PER 10.6배) 펀더멘털에 집중해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이다. 실제로 펀더멘털 관련해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가운데(올해 12조원 목표, 1분기 5.2조원) 수주믹스 또한 개선되고 있다(16년 전장 매출 비중 41%, 1분기 수주 내 전장 비중 53%).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한다(12MF PER 14x).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5,299	266	126	13,433	164.9	490	12.3	5.3	1.2	10.6	2.9
2016A	5,866	305	199	21,303	58.6	534	11.0	6.3	1.5	14.3	2.1
2017F	5,895	276	165	17,592	(17.4)	523	13.3	6.4	1.4	10.8	2.4
2018F	6,656	365	235	25,134	42.9	627	9.3	5.3	1.3	14.2	3.0
2019F	7,263	416	272	29,092	15.7	688	8.0	4.7	1.1	14.8	3.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하나투어(039130)

매수(유지)

목표가: 103,000원(유지)

종가(7/12): 83,700원

2Q17 Preview: 본업 호조 vs. 인바운드 사업 부진

■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할 것으로 예상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5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1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돼 컨센서스(31억원)를 소폭 웃돌 것이다. 국내 연결자회사 'SM면세점(지분율 82.5%)'의 2분기 영업손실은 96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전년동기(75억원) 대비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당사 추정치(-133억원)대비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한중 정치적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2분기 들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전분기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크게 줄고 분기 중 영업장 면적을 축소해 임대료,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가 기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본사, 해외 여행 수요 호조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익 성장 전망

본사 실적은 내국인 해외 여행 시장 성장과 비용 정상화 등에 힘입어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본사 매출액은 1,025억원(+18.8% YoY), 영업이익은 102억원(+2,675% YoY)을 기록할 것이다. 2분기 전체 송출객수는 125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패키지 및 티켓 송출객수는 각각 19.6%, 3.7% 늘었다. 해외 여행 수요 호조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남태평양 등 장거리 여행객 증가 등으로 ASP 감소율은 전분기(-8.3% YoY)대비 축소됐을 것이다. 16년 2분기에 공중파 TV 광고를 활발히 진행했고 여행박람회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광고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었는데 마케팅 비용 부담이 완화돼 본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연결 자회사의 실적은 점진적 개선 전망

SM면세점은 분기 중 영업 면적 축소를 단행했다. 기존 지하1층~지상 5층까지 매장을 운영했으나 2개층을 줄여 지상 1~4층으로 축소했다. SM면세점은 비용 절감 효과로 17년 283억원, 18년 175억원으로 영업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중인 자회사 '마크호텔(지분율 100%)'은 대외 환경 탓에 단기적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하나투어재팬, 유아이버스, 스타샵 등 일본 자회사는 건조한 일본행 여행 수요와 스타샵 3호점(삿포로) 개장 등에 힘입어 수익 호전이 지속될 것이다.

■ 본업 성장과 면세점 적자폭 개선 전망, 매수 의견 유지

하나투어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03,000원(17년 하반기~18년 순이익에 목표 PER 25배 적용)을 유지한다. 면세점 실적은 시내 면세점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점진적인 적자폭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내국인 해외 여행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 호전으로 본업의 영업 가치 향상을 견인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459	45	32	2,877	(3.4)	55	40.0	20.6	5.7	16.8	1.3
2016A	596	21	8	727	(74.7)	38	90.9	15.6	3.4	4.2	2.3
2017F	656	39	25	2,266	211.7	68	36.9	11.0	4.2	12.9	1.8
2018F	742	63	50	4,506	98.8	105	18.6	7.1	3.7	23.2	1.9
2019F	807	77	61	5,480	21.6	131	15.3	5.6	3.2	24.0	1.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성근(skKim@truefriend.com) ☎ 02-3276-6252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7(금)	7/10(월)	7/11(화)	7/12(수)	7/13(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79.87	2,382.10	2,396.00	2,391.77	2,409.49
	등락폭		-7.94	2.23	13.9	-4.23	17.72
	등락종목	상승(상한)	307(0)	236(1)	407(0)	267(0)	397(0)
		하락(하한)	484(0)	583(0)	391(0)	542(0)	396(0)
	ADR		79.63	79.35	76.08	73.54	76.60
	이격도	10 일	99.65	99.77	100.34	100.12	100.81
		20 일	100.09	100.13	100.67	100.45	101.09
	투자심리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14	296	284	269	289
	거래대금	(십억 원)	5,489	4,925	4,942	5,352	6,170
코스닥	코스닥지수		663.77	657.86	656.01	651.10	652.69
	등락폭		-0.02	-5.91	-1.85	-4.91	1.59
	등락종목	상승(상한)	468(0)	310(1)	477(2)	384(0)	538(2)
		하락(하한)	641(0)	824(0)	620(0)	724(0)	563(0)
	ADR		104.91	103.95	103.63	102.83	103.04
	이격도	10 일	99.81	99.08	99.05	98.53	99.00
		20 일	99.52	98.69	98.51	97.92	98.29
	투자심리		5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주)	552	513	542	586	491
	거래대금	(십억원)	2,598	2,606	2,535	2,871	2,96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유가증권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매수	2,580.2	2,031.8	1,455.2	593.7	95.5	192.4	104.2	44.5	424.9	102.7
	매도	2,786.6	1,691.6	1,641.3	851.5	86.0	147.5	94.3	19.8	442.2	50.4
	순매수	-206.4	340.3	-186.1	-257.8	9.5	44.9	9.9	24.8	-17.3	52.2
	7 월 누계	11.2	1,167.7	-788.2	-404.7	-55.8	-36.7	4.0	-17.7	-277.4	-390.7
	17 년 누계	-4,086.1	10,399.0	-9,049.3	473.8	-1,450.4	-3,913.6	-106.5	-550.4	-3,502.4	2,736.4
코스닥	매수	2,556.2	259.5	130.7	51.1	9.6	23.3	20.7	2.7	23.2	19.7
	매도	2,578.4	208.2	154.9	46.3	16.1	31.8	22.5	2.0	36.3	24.6
	순매수	-22.2	51.2	-24.1	4.8	-6.4	-8.5	-1.8	0.8	-13.1	-4.9
	7 월 누계	390.4	22.1	-352.8	-66.3	-47.2	-57.4	-70.1	-9.2	-102.6	-59.7
	17 년 누계	2,316.1	1,111.6	-2,438.5	-680.6	-332.7	-658.2	-320.2	-59.4	-387.3	-98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기타금융업	19,035	미분류	-131,939
서비스업	9,355	의약품	-4,846
화학	9,326	음식료	-1,875
LG화학	14,409	KODEX 200	-59,489
NAVER	6,896	KODEX 레버리지	-44,391
SK이노베이션	4,373	TIGER 200선물레버리지	-8,857
POSCO	4,190	KBSTAR 200	-7,096
아모레G	3,781	KINDEX 200	-6,01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0,162	기타금융업	-9,247
전기전자	21,926	미분류	-2,529
철강금속	14,275	음식료	-2,286
LG화학	23,684	삼성전기	-6,079
삼성전자	17,545	기아차	-5,203
POSCO	11,754	KB금융	-4,148
미래에셋대우	7,390	코오롱	-3,940
우리은행	6,417	현대차	-2,41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977	미분류	-192,153
화학	6,265	철강금속	-3,788
유통업	6,175	의약품	-1,672
삼성전자	8,837	KODEX 레버리지	-185,734
효성	2,684	TIGER 200 IT	-4,495
GS	2,445	POSCO	-4,037
SK하이닉스	1,738	TIGER 인버스	-1,425
이마트	1,645	LG디스플레이	-1,40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4,858	전기전자	-9,608
유통업	4,596	미분류	-2,635
화학	4,036	전기가스	-1,526
LG화학	5,262	삼성전자	-11,619
POSCO	2,884	SK하이닉스	-4,161
신세계	2,675	효성	-2,572
LG디스플레이	2,439	SK텔레콤	-1,462
삼성물산	2,294	롯데케미칼	-1,305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4,625	전기전자	-76,554
증권	16,220	미분류	-30,475
운수창고	3,220	기타금융업	-26,465
LG화학	59,226	삼성전자	-60,079
KODEX 레버리지	10,826	현대차	-19,594
미래에셋대우	10,731	엔씨소프트	-17,338
SK이노베이션	8,630	KODEX 인버스	-15,409
S-Oil	8,280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711
삼성에스디에스	5,533	KB금융	-10,108
SKC	5,016	SK텔레콤	-9,272
아모레G	4,598	KODEX 200	-8,212
삼성생명	4,369	롯데케미칼	-7,347
현대글로벌비스	3,694	한국전력	-7,21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01,622	의약품	-30,820
화학	82,573	기계	-1,685
철강금속	65,275	종이목재	318
LG화학	57,832	삼성바이오로직스	-28,421
POSCO	43,374	삼성생명	-15,145
삼성SDI	26,794	대한유화	-4,954
삼성전기	23,651	오리온홀딩스	-4,571
SK하이닉스	23,020	LG유플러스	-4,367
삼성전자	19,769	현대위아	-3,273
엔씨소프트	13,783	한국금융지주	-3,256
KODEX 레버리지	13,602	한온시스템	-3,254
현대차	13,292	아모레G	-3,077
삼성화재	11,611	BNK금융지주	-2,88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87	기계,장비	-2,916	IT부품	1,759	제약	-6,419
의료,정밀기기	743	제약	-2,888	의료,정밀기기	1,052	반도체	-3,639
전문기술	275	사업지원	-1,118	전문기술	533	금속	-1,385
이녹스첨단소재	765	브이원텍	-2,463	이녹스첨단소재	3,081	셀트리온	-3,634
테라세미콘	616	모두투어	-1,136	다원시스	940	테스	-3,236
솔브레인	583	아모텍	-1,022	에스티팜	792	동진세미켐	-1,720
뷰웍스	571	포스코캠텍	-867	AP시스템	767	휴젤	-1,396
이엘피	440	동진세미켐	-720	HB테크놀러지	582	CJ E&M	-1,09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527	금융	-467	반도체	1,331	IT부품	-2,160
반도체	436	기타서비스	-398	비금속	312	제약	-1,693
디지털컨텐츠	377	의료,정밀기기	-88	화학	287	연구,개발	-947
코오롱생명과학	566	NICE평가정보	-398	SK머티리얼즈	771	이녹스첨단소재	-1,595
컴투스	361	제일홀딩스	-369	아프리카TV	539	CJ E&M	-887
에스티	233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8	솔브레인	490	큐리언트	-872
와이엠씨	139	파크시스템스	-85	에스티팜	481	셀트리온	-770
테라세미콘	120	비에이치	-59	원익머트리얼즈	451	나스미디어	-64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176	기계,장비	-8,026	반도체	23,373	기계,장비	-5,806
의료,정밀기기	3,070	제약	-5,659	제약	14,664	방송서비스	-1,759
소프트웨어	795	방송서비스	-3,227	IT부품	5,615	통신장비	-1,173
코오롱생명과학	5,079	브이원텍	-8,357	테스	5,421	브이원텍	-5,442
오스템임플란트	2,677	셀트리온	-6,428	셀트리온	4,892	CJ E&M	-2,633
다원시스	1,641	테스	-3,583	뷰웍스	4,074	텔콘	-1,591
이녹스첨단소재	1,457	CJ E&M	-3,286	이녹스첨단소재	3,683	인트론바이오	-1,371
심텍	1,445	휴젤	-3,040	서울반도체	3,156	제일홀딩스	-1,358
솔브레인	1,441	제일홀딩스	-1,802	코오롱생명과학	3,081	테라세미콘	-1,275
실리콘웍스	1,271	포스코캠텍	-1,791	주성엔지니어링	3,014	포스코 ICT	-1,142
에스티팜	1,199	신라젠	-1,577	동진세미켐	2,738	에스에프에이	-1,012
엘오티베콤	1,120	모두투어	-1,529	코미팜	2,347	이오테크닉스	-967
AP시스템	1,102	텔콘	-1,454	SK머티리얼즈	2,137	파라다이스	-90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동일산업	30 일	부산가스	34 일
SIMPAC	29 일	제주항공	29 일
삼원강재	23 일	POSCO	15 일
엠케이트렌드	21 일	체시스	12 일
무림P&P	18 일	세아베스틸	12 일
알보젠코리아	17 일	조선선재	11 일
두산	16 일	AJ네트웍스	11 일
국도화학	14 일	더존비즈온	10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AP위성	38 일	하이록코리아	25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6 일	녹십자셀	17 일
디오	15 일	진로발효	17 일
인바디	13 일	한일네트웍스	13 일
한양이엔지	12 일	엠벤처투자	13 일
골프존뉴딘	11 일	금화피에스시	12 일
케이맥	11 일	이크레더블	11 일
이라이콤	10 일	한창산업	11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생명	138,016	KB금융	373,536
LG화학	78,071	삼성생명	211,470
S-Oil	57,845	POSCO	125,645
KODEX 레버리지	54,207	LG화학	99,887
SK이노베이션	42,342	오리온	73,093
삼성SDI	31,036	삼성전자	55,432
SK하이닉스	26,165	LG	41,292
POSCO	25,105	한국전력	29,444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녹스첨단소재	12,858	휴젤	12,054
솔브레인	5,346	테스	10,199
HB테크놀로지	4,833	포스코켐텍	4,960
원익IPS	4,533	모두투어	4,699
서원인텍	4,441	셀트리온	4,414
오스텍임플란트	4,426	AP시스템	4,380
주성엔지니어링	4,384	주성엔지니어링	3,287
다원시스	3,029	고영	3,09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4,625	82,573	107,198
증권	16,220	3,467	19,688
운수창고	3,220	8,066	11,286
LG화학	59,226	57,832	117,058
삼성SDI	2,085	26,794	28,879
삼성전기	3,587	23,651	27,238
KODEX 레버리지	10,826	13,602	24,428
현대제철	2,122	9,408	11,530
삼성에스디에스	5,533	5,237	10,771
팬오션	3,090	4,784	7,874
현대글로벌비스	3,694	2,255	5,950
대림산업	3,143	2,552	5,695
NH투자증권	2,897	2,248	5,145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4,176	23,373	27,549
의료,정밀기기	3,070	5,151	8,221
디지털컨텐츠	429	1,714	2,143
코오롱생명과학	5,079	3,081	8,160
이녹스첨단소재	1,457	3,683	5,140
뷰웍스	476	4,074	4,550
오스텍임플란트	2,677	772	3,450
주성엔지니어링	103	3,014	3,117
SK머티리얼즈	867	2,137	3,003
코미팜	373	2,347	2,720
피에스케이	609	1,944	2,553
다원시스	1,641	835	2,476
실리콘웍스	1,271	819	2,09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일동홀딩스	42 일	SIMPAC	31 일
쌍용차	19 일	이노션	28 일
SK가스	17 일	현대EP	27 일
유화증권	15 일	맥쿼리인프라	26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15 일	MH에탄올	22 일
OCI	14 일	진양화학	21 일
KBSTAR 고배당	12 일	광동제약	18 일
농심	12 일	TIGER 지속배당	17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그랜드백화점	32 일	조이맥스	46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6 일	코메론	31 일
일지테크	25 일	동우팜투테이블	22 일
NICE평가정보	23 일	삼아제약	22 일
대원산업	22 일	디지털대성	19 일
휴맥스홀딩스	20 일	화성	19 일
경남스틸	19 일	PN풍년	19 일
세원물산	17 일	동일철강	19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15,020	삼성바이오로직스	-58,453
현대차	-70,235	오리온홀딩스	-53,402
오리온	-50,363	LG전자	-41,735
카카오	-40,991	LG디스플레이	-23,048
엔씨소프트	-36,143	SK하이닉스	-21,135
현대모비스	-34,438	KODEX 200	-18,740
LG	-34,266	대한유화	-17,776
NAVER	-31,351	롯데케미칼	-17,246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휴젤	-18,037	CJ E&M	-10,519
에스에프에이	-13,702	제일홀딩스	-9,223
셀트리온	-11,594	파라다이스	-7,490
브이원텍	-8,357	브이원텍	-5,442
SK머티리얼즈	-8,258	뷰웍스	-5,377
하이제2호스팩	-6,501	솔브레인	-5,021
이녹스	-6,417	파트론	-4,555
포스코켄텍	-6,196	비에이치아이	-3,61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14,032	-30,820	-44,852
미분류		-30,475	16,621	-13,855
기타금융업		-26,465	13,320	-13,145
삼성바이오로직스		-2,225	-28,421	-30,646
KODEX 인버스		-15,409	-698	-16,107
KB금융		-10,108	-1,740	-11,848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711	-128	-11,839
KODEX 200		-8,212	-2,201	-10,413
대한유화		-4,945	-4,954	-9,899
오리온홀딩스		-1,151	-4,571	-5,722
BNK금융지주		-1,962	-2,883	-4,845
한미약품		-2,491	-2,205	-4,696
한미사이언스		-1,688	-2,304	-3,992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8,026	-5,806	-13,832
방송서비스		-3,227	-1,759	-4,986
통신장비		-1,605	-1,173	-2,778
브이원텍		-8,357	-5,442	-13,799
CJ E&M		-3,286	-2,633	-5,918
제일홀딩스		-1,802	-1,358	-3,160
텔콘		-1,454	-1,591	-3,044
에스엠		-1,147	-152	-1,299
아우딘퓨처스		-1,014	-271	-1,285
인터플렉스		-1,105	-148	-1,253
에스에프에이		-221	-1,012	-1,233
씨젠		-944	-148	-1,092
이오테크닉스		-110	-967	-1,07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1	26,120
LG디스플레이	280	10,299
NAVER	10	8,290
한국항공우주	132	8,020
LG전자	108	7,762
삼성전기	72	7,214
엔씨소프트	16	5,909
GS건설	170	5,4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코오롱생명과학	19	3,020
셀트리온	26	2,827
파라다이스	143	1,857
인터플렉스	43	1,614
오스템임플란트	22	1,263
원익IPS	41	1,238
에코프로	52	1,209
SK머티리얼즈	7	1,19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47	9,344,235
SK하이닉스	39,008	2,687,642
엔씨소프트	4,162	1,510,763
NAVER	1,439	1,181,389
삼성바이오로직스	4,063	1,137,563
LG디스플레이	30,394	1,104,840
KB금융	18,848	1,078,105
하나금융지주	21,975	1,018,52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814	2,901,255
바이로메드	2,483	256,499
파라다이스	17,848	232,916
로엔	2,791	232,211
코미팜	4,777	177,703
메디투스	258	144,029
신라젠	5,288	115,277
SK머티리얼즈	510	92,74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음식료	4,809 미분류	-8,264	
운수장비	3,498 통신업	-4,095	
종이목재	2,572 비금속	-3,881	
오리온	3,441 KBSTAR 200	-4,296	
페이퍼코리아	2,488 쌍용양회	-4,275	
LG전자	1,917 LG유플러스	-4,049	
KODEX 200	1,474 SK증권	-3,531	
오리온홀딩스	1,415 ARIRANG 200	-3,360	
금호타이어	1,398 팬오션	-1,770	
현대차	1,322 삼성엔지니어링	-1,639	
삼성중공업	1,258 메리츠증권증권	-1,341	
한화생명	1,221 SK하이닉스	-1,119	
두산인프라코어	1,145 맥쿼리인프라	-1,10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기계,장비	2,630 제약	-451	
반도체	2,308 금융	-274	
금속	2,168 정보기기	-158	
브레인콘텐츠	1,835 원익홀딩스	-549	
동국산업	1,396 셀트리온	-467	
위지트	1,360 이녹스	-339	
코엔텍	1,273 바이오니아	-311	
동진세미켐	1,049 신화콘텍	-305	
신라젠	895 제일바이오	-256	
루트로닉	887 3S	-237	
코나아이	540 MP그룹	-234	
코디엠	519 KG이니시스	-189	
에스에프에이	496 톡텍	-182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7(금)	7/10(월)	7/11(화)	7/12(수)	7/13(목)
외국인	10,399.0	1,167.7	1,040.8	276.6	-58.0	98.2	383.9	340.3
기관계	-9,049.3	-788.2	-326.3	54.9	77.2	-20.4	-252.0	-186.1
(투신)	-3,913.6	-36.7	53.6	12.9	-9.6	10.8	-5.3	44.9
(연기금)	880.4	396.5	363.6	-2.7	52.6	151.6	76.6	85.5
(은행)	-550.4	-17.7	-1.8	-1.3	-9.0	-11.1	-5.3	24.8
(보험)	-1,450.4	-55.8	-60.6	-24.5	-22.5	-14.7	-8.4	9.5
개인	-4,086.1	11.2	-132.2	63.6	-46.2	-123.7	180.4	-206.4
기타	2,736.4	-390.7	-582.3	-395.1	27.1	45.9	-312.4	52.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7/6(목)	7/7(금)	7/10(월)	7/11(화)	7/12(수)
KOSPI	1,961.3	2,026.5	2,409.5	2,387.8	2,379.9	2,382.1	2,396.0	2,391.8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582.8	23,863.1	23,346.2	23,692.4	24,054.8	23,582.8
(증감액)	6,853.1	58.8	828.4	160.4	-516.9	346.2	362.4	-472.0
(회전율)	28.8	24.8	34.9	30.6	34.6	31.8	31.1	34.9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879.1	261.5	-476.9	573.3	447.4	-433.3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184.1	4,122.5	4,141.4	4,231.1	4,198.4	4,184.1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283.1	4,364.0	4,377.6	4,312.1	4,305.3	4,283.1
미수금	151.0	125.6	122.2	149.8	124.7	114.9	118.6	122.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5(수)	7/6(목)	7/7(금)	7/10(월)	7/11(화)
전체 주식형	68,796	-6,689	-422	57	-81	-11	-191	0
(ex.ETF)		-5,228	-78	-19	-34	-15	25	-6
국내주식형	51,414	-6,356	-475	53	-77	-14	-226	-2
(ex.ETF)		-4,874	-132	-22	-29	-18	-9	-7
해외주식형	17,382	-332	53	3	-5	3	35	1
(ex.ETF)		-354	53	3	-5	3	35	1
주식혼합형	8,435	370	118	46	26	10	11	8
채권혼합형	21,681	-4,626	-160	-47	-32	-33	-7	-25
채권형	105,283	2,989	256	66	-44	-110	157	207
MMF	120,436	16,287	10,169	3,060	1,132	1,364	-1,054	-4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7(금)	7/10(월)	7/11(화)	7/12(수)	7/13(목)
한국	9,063	1,021	911	240	-50	85	337	299
대만	8,714	-6	222	-204	-70	367	102	28
인도	8,287	-219	-15	-65	25	25	-	-
인도네시아	1,015	-285	-174	-25	-41	-46	-1	-61
태국	440	46	-18	-7	-	2	-14	-
남아공	-3,520	615	392	115	155	85	37	-
필리핀	401	-7	-5	-3	1	-1	5	-6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7/7(금)	7/10(월)	7/11(화)	7/12(수)	7/13(목)
회사채 (AA-)	2.14	2.32	2.30	2.30	2.30	2.28
회사채 (BBB-)	8.27	8.56	8.54	8.54	8.54	8.52
국고채 (3년)	1.64	1.78	1.76	1.76	1.76	1.75
국고채 (5년)	1.80	2.00	1.97	1.96	1.96	1.94
국고채 (10년)	2.08	2.32	2.29	2.28	2.27	2.24
미 국채 (10년)	2.56	2.39	2.37	2.36	2.32	-
일 국채 (10년)	0.06	0.09	0.09	0.10	0.09	-
원/달러	1,210.50	1,154.30	1,149.50	1,151.10	1,145.10	1,136.30
원/100엔	1,030.04	1,013.70	1,007.81	1,005.95	1,011.04	1,003.27
엔/달러	117.52	113.87	114.06	114.43	113.26	113.26
달러/유로	1.05	1.14	1.14	1.14	1.14	1.14
DDR3 1Gb (1333MHz)	1.15	1.21	1.21	1.22	1.22	-
DDR3 2Gb (1333MHz)	1.50	1.72	1.72	1.72	1.72	-
NAND Flash 16Gb (MLC)	1.87	2.94	2.94	2.94	2.96	-
CRB 지수	193.97	174.35	174.54	175.74	175.70	-
LME 지수	2,663.2	2,821.7	2,811.9	2,829.4	2,838.0	-
BDI	961	822	820	830	859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4.23	44.40	45.04	45.49	-
금 (달러/온스)	1,131.35	1,215.65	1,211.90	1,211.05	1,218.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韓> 6월 수출 YoY(1일) (13.7%, 16.2%, 13.4%) 6월 닛케이 제조업 PMI (50.1, n/a, 49.2) 美> 6월 마켓 제조업 PMI (52.0, 52.1, 52.1) 5월 건설지출 MoM (0.0%, 0.3%, -1.4%)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4, 49.8, 49.6) 日> 6월 닛케이 제조업 PMI (52.4, n/a, 52.0)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7.4, 57.3, 57.3)	韓> 6월 CPI YoY (1.9%, 2.1%, 2.0%)	美> FOMC 의사록 공개 5월 내구재 주문 (-0.8%, -0.8%, -1.1%) 5월 제조업수주 (-0.8%, -0.5%, -0.2%)	美> 연준 Powell 연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8, 243, 244) 5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6.5, -46.3, -47.6) 6월 ADP취업자 변동(천건) (158, 188, 253)	美> 6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222,178,152) 6월 실업률 (4.4%, 4.3%, 4.3%)
10	11	12	13	14
中> 6월 CPI YoY (1.5%, 1.5%, 1.5%) 6월 PPI YoY (5.5%, 5.3%, 5.5%)	美> 5월 도매재고 MoM (0.4%, 0.3%, 0.3%)	韓> 6월 실업률 SA (3.8%, 3.7%, 3.6%)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 엘런의장 하원 증언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7.4%, n/a, 1.4%) 日> 6월 PPI YoY (2.1%, 2.0%, 2.1%) 5월 3차 산업지수 MoM (-0.1%, -0.5%, 1.2%)	韓> 금융통화위원회 (1.25%,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5, 248) 6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0%)	美> 6월 CPI YoY (n/a, 1.7%, 1.9%) 6월 소매판매 MoM (n/a, 0.1%, -0.3%) 6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0%)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5.0, 95.1)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3.3%)
17	18	19	20	21
中> 2Q GDP YoY (n/a, 6.8%, 6.9%)	유럽> 6월 CPI YoY (n/a, n/a, 1.4%) 7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7.7)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7.4%) 6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90,1092)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6월 선행지수 (n/a, n/a, 0.3%) 유럽> ECB 금리결정 (n/a, -0.4%, -0.4%) 7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3) 日> 5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2.1%)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3.3%)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